

직장환경개선의 착안점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환경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무환경의 쾌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 근로자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인 시점에서 직장의 쾌적화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을 스스로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각자의 노력들과 함께 '좋은 직장 만들기'가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勞動衛生' 지에 수록된 내용을 연재로 소개한다.

PART 1

직장환경의 실태와 쾌적화의 필요성

직장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① 최근 기술혁신의 진전,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의 진보에 수반하는 취업형태의 변화 등 속에서 취업에 따른 피로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점, ② 경제적 풍요로움이 실현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식이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노동면에 있어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③ 노동력 인구의 고연령화, 여성의 직장진출에 따른 일련의 변화에 대응한 직장환경의 조성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술혁신이 눈부시게 진전됨에 따라

기업내에서는 각종의 OA기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공간의 확보, OA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열방사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지고, 아울러 근무환경도 크게 변화해가고 있다.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는 사무종사자수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기업활동의 국제화 등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어서 취업양상의 변화나 취업범위의 확대 등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활발한 직장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수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역할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는 한편,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있어 고연령 사무종사자의 증가도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종래의 물질적 만족감에서 정신적 만족감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과 함께, 건강, 여유, 윤택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그에 따라서 근무환경도 이에 대응해 갈 필요가 생기고 있다.

PART 2

직장의 쾌적화를 위한 개선부문

‘쾌적한 직장환경’이란 ‘피로나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일하기 편안하며 생동감이 있는 직장환경’이라 할 수 있겠다.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것은 ① 환경의 관리, ② 작업방법의 개선, ③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④ 기타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를 들 수 있다.

작업환경의 관리는 작업공간, 시각환경, 온열조건, 공기환경, 소리환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인자를 적절하게 조성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일이다.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오피스 형태가 넓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형태인지 개인실 형태인지 또 책상의 배치가 대향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레이아웃, 업무공간, 통로 폭, 천장 높이, 바닥의 재질 및 구조, 책상과 의자, 기타 가구, 조명 기구의 형상·소재·색채, 화분이나 장식물 등이 대상이 되며, 그리고 오피스는 ‘일하는 곳’이자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가 적정히 조화되도록 한다든지, 집중

하던 일에 대한 긴장으로부터의 해방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환경으로서는 적정한 조도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특히 VDT작업에 관해서는 눈부심의 방지를 중심으로 하여 눈에 부드러운 조명과 채광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환경에 대하여는 먼지, 냄새 등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최근에 급격히 확산되는 금연운동 추세와 더불어 그 중에서도 흡연 대책이 요구될 것이다.

소리환경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회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서, 공구 기기의 음, 밖에서의 음, 웅성거림 등의 소음을 제어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PART 3

쾌적화를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

① 계속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한다.

근무환경은 적절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공조설비나 조명기구 기타 기계기구 등의 계속적인 관리는 물론 식당, 휴게실, 상담실 등을 청결하고 이용하기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이러한 기계장치·설비의 취급, 보수점검 등을 다루는 매뉴얼 정비와 함께 계획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생산방식, 작업내용, 직원의 연령구성 등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교정해 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잘 적용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바뀌어진 직장환경은 자기참여의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직장을 더욱 쾌적한 곳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③ 개인차를 배려한다.

직장은 각자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만족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피로나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획기적인 대응의 강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정서적인 측면을 배려한다.

직장내에 꽃이나 관엽식물을 놓거나, 그림을 장식한다거나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오게 하는 등 시청각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는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로나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상승효과도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일에 대한 만족감이나 쾌적감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